

누구나 해외에 나갈 때면 맨 먼저 챙기는 것이 명함일 것이다. 한번은 중국을 갔는데 어쩌다가 한글 명함을 주었더니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 못 해 난처해했다. 결국 한자로는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서 한글과 한자를 비교해가며 성의껏 설명 해 주었다. 그러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한글명함을 받은 외국 사람들은 한글 을 처음 보는 글자라며 호기심을 나타낸다. 그러 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은 때와 초성·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한글의 제자원리와 세계 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글이라고 칭찬한 외 국 학자들의 이름을 힘주어 열거한다. 그럴 때 마다 그들은 놀람과 경이로운 눈길로 대한다. 물 론 한자어로 그대로 직접 한글 표기를 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말은 쉽게 풀이해 써야 할 것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한자어를 읽는 소리대 로 한글표기를 해도 지장이 없다.

무엇 글자란 한글 부호요 기호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글자들에 담긴 말이 뜻이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음식물을 담은 그릇이 바로 글자인 셈이다. 따라서 그것은 보기 좋고 튼튼하고 쓰기 편 한 데에 가치가 있다면 글자도 누구나 배우기 쉽 고 쓰기에 편하면 된다. 더구나 과학적으로, 합 리적인 장점을 지닌 한글로서 정인지의 설명처럼 바람 부는 소리, 귀신이 우는 소리, 새들이 지 저귀는 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다.



###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 국위선양하는 소중한 자산 '한글'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이 일찍부터 활발하게 활용돼 왔다. 조선조에 성행했던 고대소설도 모두 한글로 써 있고, 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손으로 문학작품으로 장 작됐다. 이처럼 한글전용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글 자체가 세계에 유례없는 우수한 문자였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언어학자 에스페르센은 "외국 말을 자주 많이 써 버릇하 면 똑같은 뜻을 가진 순수한 자기 말에 대한 어 감을 서툴게 해 결국은 자기 말을 죽이고 외국

말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글 은 이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넘어 이제는 국위 를 선양하는데 이르렀다. 최근 세계의 언론은 "한글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품으로 등장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이 인도네시 아의 소수민족 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사례를 집중 보도하며 한국의 한글 수출에 큰 관심을 드 러냈다. 인도네시아 부른섬 소수민족이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착어 '찌아찌아'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사용키로 한 소위 '한글 섬'

사연을 소개했다. 부른 섬은 조동학교는 이미 한 글로 된 교재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토착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표기 문자로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한글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 해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문자가 없는 소수종족 을 위한 한글 교재를 만들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 다. 지난 7월 완성된 한글 교재가 소라윌리오에 도착,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이 교재로 외국의 동 화를 배우고 동물이름, 부른 섬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는 찌아 찌아 어 로 구성된 전래동화도 있다. 한 거북이가 자신 의 음식을 훔친 원숭이를 바나나 나무 밑을 이용 해 죽인 후 다른 원숭이들이 복수하려 오자 돌로 된 가짜 거북이를 만들어 이들을 물리친다는 내 용 등이다. 서울의 종심, 광화문 광장에 한글날 인 10월 9일에 세종대왕 동상이 모습을 드러낸 다. 동상은 좌상(坐像)형태로 대왕이 왼손에 '훈 민정음 해례본'을 펼쳐든 채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는 모습이다. 세종이 국민들을 사랑해 한글을 창제했듯이 인류에 차원에서 한글을 세 계에 널리 알리려 하며 이것이 세계화 시대에 우 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한글 그 자체만으 로도 한국에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며 한국인 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불만평

박구원

마음의 사색이 필요한 계절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b>인사홍원불닷컴</b> www.hyunbul.com <b>실시간 뉴스 북다뉴스</b> www.buddhanews.com <b>불교포털 부다피아</b> www.buddhapia.com <b>쇼핑몰 원불샵닷컴</b> www.hyunbulshop.com
--	---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사부대중 테마칼럼

#### 9월의 테마-독서

어린 시절 책방 주인을 꿈꿨다. 어린 이날 사촌 오빠에게 받은 '작은 아씨들'의 이야기가 꼭 우리 집 얘기인 것만 같았고, 그 중에서도 둘째인 '조'는 나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독립적인 성격,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 더불어 '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더더욱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조'에게 있는 글 쓰는 재주가 내게는 없었다. 나도 '조'처럼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 언니에게 들은 귀동냥으로 글을 써서 초등학교 백일장에서 상을 탄 적은 있지만 그게 진짜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글을 쓰는 일이 어렵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역시 '독서'였다.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엔 '독서'만한 것이 없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온전히 내 것

## 내게 맞는 책 선택하는 방법

이 되는 독서. 하지만 나는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를 몰랐다. 당시 고전(古典)이라 이름 붙여진 책들은 내게는 어려웠고 재미도 없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맞는 쉬운 책을 찾아 읽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던 책들은 내 손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딱치는 대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 많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몇 권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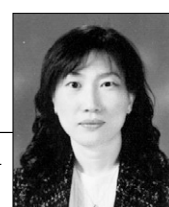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글이 달린 책들을 읽게 됐다. 재미도 있었지만 기억에도 남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을 권해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보고 추천하는 책이 좋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안목이 길러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것만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남는 것은 없다.

독서도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좋고 말한 책이 무조건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두꺼운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책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에게 맞는 독서하는 방법과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좋다.

나는 늘 새로운 책을 대할 때마다 "이 책은 재미있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꼭 재미있는 책이 돼 나의 기억에 남는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들고 돌아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 책을 읽든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해보자. 그러면 그 책은 분명 자신의 것이 된다. 내 책방에 책이 한 권 늘어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승은  
서울 풍납동 교사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命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또는 명망타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